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2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9. 참 즐거운 노래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리오니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어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비틀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속삭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사60:19-20	인도자
----------------	-----------------	-----

♠ 교 독 문	2. 시편 2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권미정 집사 II. 윤석철 장로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79. 피난처 있으니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눅 13:1-5	인도자
------------	-------------------	-----

II. 시46:1-11	노순옥 권사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그릇된 비교	김재흥 목사
-----------	-----------------	--------

II. 우리의 피난처	김기석 목사
-------------------	--------

거둠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427. 내가 매일 기쁘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르는 곳마다 희망의 징표로 우뚝 서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절망의 징표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징표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이제는 갈짓자 행보를 멈추고, 땀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42)	에베소 강해(8)
기도: 박애순 집사	기도 : 김준호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조문규 집사

5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호원 오진훈 조병주 백혜숙 박시내
	헌금위원	한완식 김중수 윤주원 김애경 이기분 이순정

악한 자를 죽여달라고?

하느님, 악한 자를 죽여만 주소서!
피에 주린 자들,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은 당신을 두고 음흉한 말을 지껄이며
당신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야훼여, 당신께 원수진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리이까?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리이까?
내가 그들을 지극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하느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 주소서.
나를 파헤쳐 보시고 내 근심 알아 주소서.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139:19-24

시편을 읽을 때마다 ‘원수’를 저주하는 노골적인 대목에 부딪쳐 노상 마음이 불편했다. 어떤 이가 쓴 글에 ‘저주시편’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아직 삶의 치열한 현장에 서지 못하고 도사연(道士然) 하면서 대충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겠다 싶으면서도, 아무튼 저주를 내뱉고 또 무자비한 복수를 기원하는 대목에 부딪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핏발 선 저주를 퍼붓게 되느니 차라리 그가 말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을 피해 살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저주시를 읽으면서 마음 불편한 까닭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남의 어떤 행동에 화를 내는 까닭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였다.

그러고 보니 시인이 그토록 지독하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한 ‘원수들’이 모두 내 몸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악한 자, 피에 주린 자, 하느님을 우습게 아는 자, 야훼께 맞서는

자.....그게 바로 나의 ‘나’ 아닌가?

일단 시선이 안으로 쏠리자, 저주시편의 구절구절이 그렇게 간절하고 시급할 수 없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개역 139:19)

내 속에 있는 분노, 저주, 욕설, 폭력을 좋아하는 것들아, 나를 떠나 거라. 오늘도 나는 무심결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비난을 내 형제들에게 퍼부었던가? 그러는 ‘나’여, 나를 떠나다오. 나에게서 영원히 사라져다 오! “내 안에서 주를 적대하는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냥 알아졌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함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 드렸다.....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7:36-38, 50

“그대는 왜 그분 발에 눈물을 떨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가?”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밟고 버리고 내 앞에서 문을 닫았는데 그분 홀로 나를 받아 주셨다.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냥 알았다. 그냥 알아졌다.”

여인의 행위는 하나의 ‘응답’(response)이었다. 주님의 용납에 대한.

거절 아니하심이 곧 사(赦)하심이다. 깨끗한 이는 깨끗한 자를 용납한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모르고, 다만 자기가 용납되었음을 알고 사랑으로 반응한다.

예수의 ‘선포’로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평안이다.

(이 아무개, 《길에서 주운 생각들》)

혁명

외국의 한 기자가 장일순을 찾아와 물었다.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일순이 되물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혁명을 묻는 거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걸 묻는 거요?”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요.”

기자가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 혁명도 다 있습니까?”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깨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장일순은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서로 때를 닦되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

서로의 때를 닦으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보듬어 안는 정성으로 그 일을 해야 하리라.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때도 못 닦고 사람도 잃게 되리라.

(최성현, 《줍쌀 한 알》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형인순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윤수진 박옥순 안정숙 김훈동 노용래 차혜심 문홍일

월정헌금:

정진경 허광식 표명화 김홍기 조병주 이정은 이봉배 송의섭 김정섭
노미향 박상규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정두리 이인웅 안정숙 장재영 김재영 이정은 김창원
정지은 김수빈 이동천가족

생일감사헌금: 백혜숙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박 영 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정 현 주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5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2.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6월 1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3일(금)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3. **연합속회** : 6월 3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다메섹 식사준비 - 갈라디아
4. **선교회장회의** : 임원회 직후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5. **환경회복세미나** : 서울연회가 주최하는 환경회복 세미나가 6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6. **원로장로위로회** : 중구용산지방 사회평신도부가 주최하는 원로 장로 위로회가 6월 3일(금) 오전 11시 <예수 마을 교회>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텔레비전 시청·컴퓨터 서핑 시간을 줄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 식사 대접 : 유증희 집사 이재문 권사 (금혼식)

떡 : 김철수 유영남 권사 (손녀 하연이 백일)

* 헌화 : 유증희 집사 이재문 권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